

## 현대제철 자회사 반대·직접고용 쟁취 대책위 출범

### “제철 설비로 제철 제품 생산하는 현대제철 노동자다” ... 현대제철 자본, 불법과건 범죄 덮으려 초대형 꼼수

금속노조가 현대제철의 자회사 설립에 대해 “불법과건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현대제철 자회사 반대,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금속노조 대책위원회’는 7월 26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공장 C지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의 자회사 밀어붙이기는 또 다른 꼼수다”라고 지적했다.

현대제철 사측은 불법과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금속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자회사 현대ITC의 채용서류 접수 공고를 냈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현대제철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자회사를 만들고 있다”라며 “불법과건 책임자 처벌과 포항, 순천, 당진, 울산 등 모든 현대제철 공장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날까지 투쟁을 전개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강근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법원과 노동부가 현대제철의 불법과건을 인정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무시하



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재벌의 불법 탈법에 대해 눈감지 말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병용 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순천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제철이 만든 자회사 현대ITC의 등기를 보면 급조한 회사라는 걸 알 수 있다. 현대제철 임원들이 ITC 대표이사이고, 감사라고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병용 지회장은 “현대제철은 현대ITC를 악용해 불법과건 근로자지위확인 소 취하와 부제소 동의를 받아 불법과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라며 “현대제철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고 금속노조 대책위를 중심

으로 자회사 폐기와 직접고용 쟁취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장영석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순천단조비정규직지회장은 “작년 4월 현대제철이 현대IFC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물적 분할을 시도했다. IFC라는 자회사를 갑자기 발표해 정규직 관리자들이 열 받아서 퇴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라고 밝혔다.

장영석 지회장은 “이번 현대ITC 사달이 현대제철의 꼼수라는 사실은 순천단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정규직이 하는 일 그대로 직접 생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영석 지회장은 “현대제철에 파견은 있을 수 없다. 현대제철의 설

비로, 현대제철의 제품을 만들고, 현대제철에서 월급을 받는 우리는 현대제철의 노동자다”라며 “작년에 당했던 우리 지회는 대책위에 당당히 참여해 정규직전환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성현 노조 울산지부 현대제철을 산지회장은 “현대제철은 정규직과 별 차이 없는 자회사를 만든다고 예쁘게 포장하면서, 비정규직노조를 깨기 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자회사가 정말 좋은 노동조건 회사라

면 기존 노동조합과 상의 없이 일방 진행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라면서, “결국, 현대TC 설립은 불법과건의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다”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불법과건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2019년 순천공장 157명이 고법에서 승소해 대법원에 올라가 있고, 2020년 12월 22일 노동부 광주청은 전 공정 5개 사내하청 516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

다. 2021년 2월 10일 대전청은 당진공장 749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진공장 불법과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자는 제조업 최대 규모로 3,228명이다.

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7월 23일부터 당진공장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26일부터 대책위가 결합해 선전전과 결의대회 등 투쟁을 전개한다. 대책위에 금속노조 중앙과 노조 충남지부·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순천·순천단조)가 참여하고 있다.

### 한국산연지회 지원 모임 오자와 타카시 씨 옥중 편지

한국산연 노동자들을 위해 열심히 싸우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5월 10일 산켄전기 본사 앞에서 부당 체포된 저의 구원 운동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산켄전기는 사이타마현 경찰 공안과 한 짝이 되어 5월 10일 본사 앞에서 항의하는 저를 폭행 혐의로 부당하게 구속했습니다.

이 항의 행동은, 한국산연지회의 한국산연 법인해산·해고가 부당하다는 철회요구에 한국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정식 판정 전에 노사 쌍방에 대화로 문제를 풀도록 5월 6일 화해 권고를 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한국산연 사장과 연락이 안돼 지회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저는 이번 지노위 권고로 한국산연지회와 사측이 혹은 한국산연의 해산·해고에 진

정한 책임이 있는 일본 산켄전기 본사가 대화하게 된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본사의 책임 있는 부서 담당자에게 이 중대한 지노위 결정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경찰을 불러 폭행혐의로 저를 부당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이타마현 경찰 공안과는 병을 앓는 제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집 문 열쇠 두 군데를 부수고 13명이 점심을 먹으면서 6시간 이상 가택수색을 했습니다. 정말 반인도적이고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형사탄압의 본질은 한국과 일본에서 크게 확대되는 한국산연 투쟁 지원 운동을 무서워한 산켄전기와 사이타마현 경찰 공안과가 한국산연지회 투쟁과 일본의 지원연대 운동을 와해시키고, 일본과 한국에서 강해지는 연대 확대를 단절하려고 한 것입니다.

저의 체포·구속에 대해 한국의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국내외의 많은 단체와 개인, 한국의 국회의원 41명이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5월 31일 위력 업무방해 혐의를 더해서 완전히 부당하게 기소했습니다. 현재 접견 금지된 지 2개월이 넘었습니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자력으로 싸우는 노동자들에 대해 자본과 권력·법원에 의한 민사·형사 탄압은 앞으로 투쟁이 확대하면 할수록 강해질 것입니다. 일본보다 더한 심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한국노동운동에 연대하여 이러한 민사·형사 탄압에 맞서 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옥중에 있지만, 함께 싸울 것입니다. 저에 대한 형사탄압, 한국산연 투쟁에 대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한국산연지회와 연대해 승리할 그 날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다 같이 투쟁합시다.